

## 월 양 계

6월호

- ◎ 금년에는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견하고 있으며, 6월의 경우 평년보다 강우량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흑서기인 7, 8월에는 강우량이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면서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예보이다. 지난해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사태, 주택유실, 축사붕괴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를 거울삼아 사전에 배수로 관리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유비무환의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 겨울동안 양계업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3월 6일 천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발생이 없어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3월 17일 이후 3개월 후인 6월 17일 우리나라가 마침내 AI 청정국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 감염원을 철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철새가 농장내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텃새나 사람에게 의한 계사내 바이러스 유입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보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 여름철로 다가서면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언론에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를 인용해 발표된 언론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8배가 높은 '항생제 초과' 적발건수를 보였으며, 돼지, 소, 닭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발표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닭 24,407수에 대해 도축 전후 유해물질 여부를 검사한 결과 54수에서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되었음을 발표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 지난달 14일을 기해 일부 배합사료업체들이 평균 6~7%수준으로 사료가격을 인상하면서 농가들이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배합사료업체에 따르면 해상운임료와 국제곡물가 상승을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옥수수 가격은 평소 톤당 120달러에 거래되었으나 최근에는 200달러 수준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두는 390달러, 대두박은 300달러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가에서는 한미 FTA 등 어려운 주변여건에서 사료가격인상으로 경쟁력 저하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